



보도자료



(주소) 1661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전화) 031-231-7200

배포일: 2025.08.11 보도일: 2025.08.12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두 번째 전시 수원서 개최	5	3	www.ggcf.kr	부 서: 예술본부 예술사업팀 담 당: 박수현, 윤가혜 전 화: 031-231-0846, 0841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두 번째 전시 수원서 개최

- ▶ 2025년 7월 김포를 시작으로 8월 수원, 11월 안산 및 양평에서 릴레이 전시
- ▶ 두 번째 전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8월 13일 개막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이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한 전시 '본업'이 두 번째 막을 올린다.

'본업'의 두 번째 전시 '가변하는 공간들'은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인본주의 지리학자 이 푸 투안(Yi-Fu Tuan)의 "별 특징 없던 공간에 가치가 부여되면 장소가 된다"는 메시지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폐수처리장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장으로 재탄생한 고색뉴지엄의 장소적 특성에 주목해, '공간과 장소의 상대적 개념'을 예술적 언어로 시각화한다. 경기도 예술인 23명이 참여하여 총 33점의 회화,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공간과 장소의 상대적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일차적 장소'는 우리 주위에 놓여 있거나 당연하게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공간을 저마다 애정을 가지고 장소로 변모시킨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나에게는 단순한 배경으로만 생각되는 곳이 타인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조립된 장소'에서는 물리적 실체의 일차적 장소에서 나아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장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 3부 '상대적 장소'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대전제이자 가변시키는 동력이 되는 공간과 장소의 가변적인 성질을 탐구한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은 예술을 본업(本業)으로 삼아 지속해 온 예술인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그들의 창작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은 본업인 예술 외에 별도의 생업을 병행하고 있다. '본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술이라는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온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7월 김포 개막을 시작으로 수원(8월), 안산(11월)과 양평(11월)에서 전시가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공간이 장소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술적 경험과 사유를 통해 특별한 장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시 '본업'을 통해 함께 상생하고 포용하는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현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전시 개요

- 전시 명: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가변하는 공간들
- 전시기간: 2025년 8월 13일(수) ~ 9월 17일(수) /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 전시장소: 고색뉴지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지하 1층)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 관람료 : 무료
- 전시작품: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33점
- 참여작가

구하림, 김영경, 김이태, 김재익, 김지은, 박다빈, 박용화, 서도이, 손민광, 엄익훈, 오다솔, 유수진, 이명숙, 이요, 이정림, 이지언, 이홍한, 임철민, 정일용, 최윤정, 한슬기, 황정경, 황혜인 (총 23인)

- 주최: 경기도
- 주관: 경기문화재단
- 후원: 수원특례시
- 관람문의: 031-231-0846

붙임1

전시 포스터



수원특례시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本業

Art as a Vocation

가변하는 공간들

2025. 8. 13. Wed

— 9. 17. Wed

고색뉴지엄





황혜인, <리버티 타운>,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페이스 마운트, 60×90cm

황혜인 작가에게 평택은 주요한 작업의 대상이자 장소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평택에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야기했다. 익숙한 동네에 새로 지어진 건물, 낯선 도로, 다양한 사람들 등 낯섦이 더해져 작가가 오랜만에 찾은 도시는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작가는 미군기지의 이전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사진 매체로 포착한다. 그리고 사진 시리즈로써 기록한다. 평택 미군 임대주택인 리버티 타운과 미군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틀 아메리카》, 《평택의 얼굴들》 시리즈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익숙함과 낯섦의 공존, 개인과 집단의 구조적 변화, 사회·문화적 융화를 탐구한다.



김지은, <아파트 컬러 트랜드 vs 르 코르뷔지에>(앞면), 2023, 골판지에 시트지, 200×220×16cm

김지은 작가는 병풍처럼 세운 <아파트 컬러 트랜드 vs 르 코르뷔지에>를 통해 인간적 장소가 가진 비인간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아파트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은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면의 짙은 단색은 오늘날 우리가 머물거나 지나치며 훑깃 보는 아파트 외벽의 색과 닮아있다. 반면 알록달록한 시트지가 붙여진 작품 뒷면은 모더니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색채를 모티프로 하였다. 르 코르뷔지에가 마련한 현대적 아파트는 인간의 편의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설계되었다. 오늘날에도 무릇 인간의 기능적인 삶을 목표로 작동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거주밀도로 인한 답답함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버린 반인간적인 장소라는 오명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